

성상 형용사 구문의 통사적 하위 유형 분류

정고스란

(프랑스 마흔-라-발레 대학교, 가스빠르 몽쥐 연구소)

Chung, Gohsran. 2003. A Syntactic Classification of *Sungsang* Adjectival Construction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1(4), 163-184. This paper aims to classify Korean *Sungsang* adjectival constructions on the basis of formal (syntactic) criteria. We use as formal criteria paraphrase relations between adjectival constructions and numerous support verbal constructions whose predicate nouns correspond to appropriate nouns in adjectival constructions, and other pertinent syntactic properties. The set of these formal criteria allows us to extract nine classes syntactically distinct.

주제어(Key words): 성상 형용사, 어휘-문법론, 주격 중출문, 오감 형용사, 비오감 형용사, 속성 명사, 기능 동사 구문, 신체접촉 동사 구문

1. 머리말

1.1 성상 형용사 구문에 대한 앞선 연구

한국어 성상 형용사는 다음과 같은 구조 관계를 유도하며 그 중 구문 (b)는 주격 중출문의 한 유형으로서 널리 논의되어왔다.

- (1) a. 명사_a-의 명사_b-가 형용사 (예: 짙레꽃의 냄새가 향기롭다)
- b. 명사_a-가 명사_b-가 형용사 (예: 짙레꽃이 냄새가 향기롭다)
- c. 명사_a-가 형용사 (예: 짙레꽃이 향기롭다)

이와 같은 구조 관계를 형성하는 성상 형용사 무리는 한국어 전체 형용사 어휘부로부터 정고스란 (2003)에서 추출된 바 있다. 이 글은 이렇게 추출된 성상 형용사 무리에 대한 하위 유형을 다양한 통사적 기준에 근거하여 어휘-문법론 (M. Gross 1975)의 틀 내에서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

상 형용사 구문에 대한 앞선 연구로 최현배 (1937/1973), 유현경 (1996, 2000), 김창섭 (1985), 김남탁 (1996), 김미형 (1989), 정고스란 (2003) 등을 들 수 있다. 유현경 (1996, 2000)에서는 전체 형용사 무리의 한 유형으로서 성상 형용사 구문이 논의된 바 있다. 특히 유현경 (2000)에서는 말뭉치 빈도수에 따라 확보한 2926 개의 형용사 중 77.5 퍼센트가 성상 형용사 류에 속함을 지적한 바 있다. 정고스란 (2003)에서는 어휘-문법론에 근거하여 한국어 성상 형용사 어휘부를 추출한 후 그 구문에 대한 전반적인 통사적, 의미적, 어휘적 특질을 논의한 바 있다. 정고스란에서도 유현경에서처럼 성상 형용사가 전체 형용사 목록에서 차지하는 이와 같은 높은 어휘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5300여 개에 이르는 한국어 전체 형용사 목록 (Nam, Jee-Sun 1994)에서 약 3000개 정도가 성상 형용사류에 속한다. 성상 형용사의 이와 같은 높은 어휘수를 고려할 때 그 하위 분류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 글은 이러한 하위 분류를 위한 형식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논의가 집중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2 절에서 성상 형용사 구문을 하위 분류하는 데 사용한 통사적 기제들을 망라한 후, 이 기제들을 제 2 절과 제 3 절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제 4 절에서는 앞 절에서의 기제들도 충분히 독립성을 입증할 수 없는 몇 가지 하위 무리에 대해 보충적인 통사 기제들을 결론을 내리기 전에 논의한다.

1.2. 성상 형용사 구문의 하위 유형 분류를 위한 형식적 기준

성상 형용사 구문은 다양한 기능 동사 구문과의 말바꿈 관계 및 그외 다른 변형 양상으로부터 아홉 가지 통사적 하위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들이 의미적으로는 자연 세계의 다섯 가지 감각을 나타내는 무리 (오감 형용사)와 그렇지 않은 무리 (비오감 형용사)¹⁾로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 아홉 가지 하위 무리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명명하기로 한다.

1) 여기서 ‘오감’이란 자연세계의 다섯 가지 감각, 즉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촉각’을 의미한다. ‘감각’ 및 ‘비감각’ 형용사라는 용어를 쓰고 싶으나 유현경 (1996, 2000)에서 ‘감각’ 형용사를 Nam, Jee-Sun (1994)의 ‘증상’ 형용사와 유사한 무리를 지칭하는 데 사용한 바 있다. 용어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오감’이란 용어를 쓴다.

(오감 형용사류)

미각 및 후각을 기술하는 형용사류 (미·후각 형용사류)

청각을 기술하는 형용사류 (청각 형용사류)

전체적 신체부위를 기술하는 시각 형용사류 (전체시각 형용사류)

부분적 신체부위를 기술하는 시각 형용사류 (부분시각 형용사류)

시각 및 촉각을 동시에 기술하는 형용사류 (시·촉각 형용사류)

(비오감 형용사류)

인물명사의 내제적 성질/상태를 기술하는 형용사류 (인성 형용사류)

비인물 명사의 내제적 성질/상태를 기술하는 형용사류 (비인성 형용사류)

기후를 기술하는 형용사류 (기후 형용사류)

심리적 상태를 기술하는 형용사류 (심상 형용사류)

이러한 하위 유형 분류를 증명하는 기준으로 아래 표 1에서와 같은 변형²⁾ 속성을 이용하였다.³⁾ 여기서 ‘지니다/가지다’ 및 ‘있다’ 구문으로의 말바꿈 관계는 비인성 및 기후 형용사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대체로 거의 모든 성상 형용사에 적용된다 (예: ‘인아의 성격이 착하다’, ‘인아가 착한 성격을 (지녔다, 가졌다)’, ‘인아(에게, 가) 착한 성격이 있다’). 그 하위 유형 분류에는 그다지 영향을 입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논의를 생략한다. 또한 ‘보이다/생기다’ 구문을 대체로 허용하는 세 가지 무리(전체 시각, 부분 시각, 시·촉각)는 다른 기준으로부터 보완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 4 절에서 논의한다.

2) 어휘-문법론에서 변형의 개념은 심층 및 표층 같은 도출의 방향을 전제하지 않다. 대신 둘 (또는 그 이상) 문장들 사이의 평면적이고 양방향적인 통사적 등가 관계를 지칭한다. 이러한 변형 관계는 통사적 속성의 일종으로 인물 및 비인물 같은 분포적 속성과 함께 피상적으로 동일한 어휘들을 통사적으로 (형식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3) 이 표에서 +는 한 하위 무리의 표제어가 전부 예외없이 해당 기준을 만족시킴을, (+)는 표제어의 일부만이 해당 기준을 만족시킴을 각각 의미한다.

표 1. 정상 형용사 구문의 하위 유형 분류를 위한 통사기제

		미·후각	청각	전체시각	부분시각	시·촉각	인성	비인성	기후	심상
기능동사	지나다/가자다	(+)	(+)	+	+	+	+			(+)
	있다	+	(+)	+	(+)	(+)	+			(+)
	나다	+	(+)							
	내다	(+)	+							
구문과의	보이다			+	+	+				
	생기다			+	(+)	(+)				
	굴다. 행동하다						+			
	살다. 생활하다						+			
말바꿈	상태에 있다							(+)		
	상태이다							+	+	
	느낌이다								+	
	느끼다, 느껴지다									+
	복합명사구의 '기후' 명사로의 대체								+	

2. 오감 형용사 무리

2.1. '나다' 구문과의 말바꿈 관계 : 미·후각 형용사류

아래 형용사들은 자연 세계의 미각 및 후각을 기술한다.

- (2) a. 이 된장국(의, 이) 맛이 텁텁하다
- b. 이 된장국(의, 이) 냄새가 구리다

이 두 무리를 각각 미각 및 후각 형용사로 지칭한다면, 공히 다음과 같이 '나다'를 기능동사⁴⁾로 갖는 관형 구문을 허용한다.

- (3) a. 이 된장국(에서, 이) 텁텁한 맛이 난다
- b. 이 된장국(에서, 이) 구린 냄새가 난다

4) '나다'를 어휘적 의미가 거의 없는 (따라서 독립적으로 논항을 부여하지 못하는) 기능동사 범주로 보느냐하는 데는 논의의 의지가 있다. 다만 여기서는 기능 동사 범주가 상당히 확대된 어휘-문법론에 따라 일관성있게 '나다' 및 그 외 기준으로 제시된 해당 동사 구문들을 기능동사 구문으로 지칭한다.

이에 근거하여 이 둘을 하나의 통사 무리, 즉 미각 및 후각을 기술하는 형용사 무리(미·후각 형용사)로 통합한다. 이 형용사들은 명사_a 위치에 비인물 명사_b를 명사_b 위치에 의미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도 쉽게 생략 가능한 속성 명사를 각각 허용한다(이 된장국이 (텁텁하다, 구리다)).

2.2. ‘내다’ 구문과의 말바꿈 관계 : 청각 형용사류

아래 형용사들은 인간의 목소리나 사물의 소리를 기술한다.

- (4) a. 돌이(의, 가) 목소리가 우렁차다
- b. 그 목탁(의, 이) 소리가 둔탁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형용사들을 청각 형용사라 지칭한다면, 이 형용사들은 ‘내다’를 기능동사로 하는 관형 구문을 허용한다.

- (5) a. 돌이가 우렁찬 목소리를 낸다
- b. 그 목탁이 둔탁한 소리를 낸다

이처럼 의미적으로 하나의 무리를 형성하는 이 형용사들은 통사적으로도 하나의 무리를 형성한다. 청각 형용사류는 명사_a 위치에 인물 및 비인물 명사를 두루 허용하며, 명사_b 위치의 속성 명사가 생략되지 못한다 (*돌이가 우렁차다, *목탁이 둔탁하다).

그런데, 청각 형용사는 인물 명사의 목소리를 기술할 때와는 달리, 비인물 명사의 소리를 기술할 때 미·후각 형용사의 통사적 형식을 정의해 주는 ‘내다’ 구문을 허용하기도 한다.

- (6) a. *돌이(에게서, 가) 우렁찬 목소리가 난다
- b. 그 목탁(??에서, 이) 둔탁한 소리가 난다

5) 후각 형용사의 경우 비인물 명사라는 인칭 제약이 형용사 구문에서만 지켜질 뿐, ‘내다’ 구문과는 무관하다. 이는 사전에 이 무리 형용사에 대한 개별 사실로 등재되어야 할 것이다.

- (i) *돌이(의 + 가) 냄새가 구리다
- (ii) 돌이에게서 구린 냄새가 난다
- (iii) 돌이가 구린 냄새가 난다

또한 우리가 청각 형용사 무리를 확정짓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다’ 구문이 ‘미·후각 형용사’ 무리 중 미각 형용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 (7) a. 이 된장국이 텁텁한 맛을 낸다
b. *이 된장국이 구린 냄새를 낸다

이때 (7b)에서처럼 후각 형용사의 경우 ‘내다’ 구문을 허용하지 않는데, 이는 이 무리 형용사들이 다음과 같이 ‘베이다, 풍기다’를 기능동사로 가진 또 다른 관형 구문을 허용하는 사실과 함께 후각 형용사를 미각 형용사로부터 떼어내는 근거로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 (8) a. 이 된장국(에, 이) 구린 냄새가 베었다
b. 이 된장국이 구린 냄새를 풍긴다

더불어 ‘내다’ 구문을 공히 허용하는 청각 형용사와 미각 형용사를 하나의 무리로 통합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앞에서 제시한 분류 방식을 고수하기로 한다. 먼저 한국어 어휘에 ‘청각’과 ‘미각’을 동시에 기술하는 형용사는 없지만, ‘맛’과 ‘냄새’를 동시에 기술하는 형용사는 상당수 존재한다 (구리텁텁하다, 고리다, 비리다, 비릿하다....). 다음으로 청각 형용사가 인물 또는 비인물 명사를 기술하는 반면, 미각 형용사는 후각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비인물 명사만을 기술한다는 분포적인 사실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각 형용사는 명사_b의 생략이 비문을 유도하지만 (*돌이가 우렁차다, *목탁이 둔탁하다), 미각 및 후각 형용사는 명사_b의 생략이 문장의 문법성에 영향을 입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된장국이 (텁텁하다, 구리다)).⁶⁾

6) 이처럼 이 글에서 우리가 제시한 성상형용사의 분류는 위 표에서와 같은 말바꿈 관계에 근거한 변형적 속성뿐만 아니라, 복합 주어 명사구의 분포적 속성 및 명사_b의 생략 가능성 (즉 환유 구문의 가능성)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 이러한 분포적 속성은 결론 부분에서 요약적으로 표로서 제시하기로 한다.

2.3. ‘생기다/보이다’ 구문과의 말바꿈 관계

1) 전체 시각 형용사류

아래 형용사들은 인성 명사의 ‘용모, 외모, 체격’ 같은 눈에 보이는 감각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시각 형용사로 볼 수 있다.

(9) 돌이(의, 가) 용모가 (건장하다, 곱상하다)

이 구문은 다음과 같은 ‘생기다, 보이다’를 기능동사⁷⁾로 가지는 부사형 구문을 허용하는데, 그 주어로서 ‘명사_a-의 명사_b-가’ 형식의 복합명사구뿐만 아니라 속성명사가 생략된 ‘명사_a-가’ 형식만도 가능하다.

(10) a. 돌이의 용모가 (건장하, 곱상하)게/어 (생겼다, 보인다)

b. 돌이가 (건장하, 곱상하)게/어 (생졌다, 보인다)

이러한 형용사들은 명사_b 위치의 ‘용모, 외모, 체격’ 대신 ‘몸, 얼굴’ 같은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신체 부위 명사를 허용하기도 한다. 이들 또한 앞 문장들과 마찬가지로 ‘생기다/보이다’를 기능동사로 한 부사형 구문을 허용한다.

(11) a. 돌이의 (몸이 건장하다, 얼굴이 곱상하다)

b. 돌이의 (몸이 건장하, 얼굴이 곱상하)게/어 (생졌다, 보인다)

이처럼 ‘생기다, 보이다’ 구문과의 등가 관계를 허용하는 이 형용사들은 인물명사의 전체적인 신체에 대해 시각적으로 기술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을 ‘전체적 신체부위를 기술하는 시각 형용사 (전체 시각 형용사)’ 유형으로 내세운다. 결국 이 형용사들의 분포적 속성은 명사_a에 인물 명사를, 명사_b에 자유롭게 생략 가능한 속성 명사를 허용한다 (민우는 (건장하다, 곱상하다)). 이 무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외에도 ‘체질, 옷차림, 나이, 키’ 등을 기술하는 형용사들도 있다 (4.4절 참조).

7) ‘생기다, 보이다’를 기능동사로 보는 데 있어서는 전반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어휘-문법론의 체계 내에서 이 동사 앞의 부사형이 서술성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기능 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는 더 깊은 논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2) 부분 시각 형용사류

아래 형용사 구문은 인물 명사의 부분적인 신체 부위의 시각적 감각을 기술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들을 ‘부분적 신체 부위를 기술하는 시각 형용사 (부분시각 형용사)’로 지칭하기로 한다.

(12) 인아의 (코가 오뚝하다, 눈이 거슴츠레하다)

이 형용사들 또한 ‘전체시각’ 형용사처럼 ‘생기다/보이다’ 구문으로의 변이를 허용하는데, 그 주어로서 ‘명사_a-의 명사_b-가’ 형식만을 허용한다. ‘전체시각’ 형용사와는 달리 속성명사가 생략되고 명사_a만을 주어로 하는 경우 대체로 비문이 된다.

(13) a. 인아의 (코가 오뚝하, 눈이 거슴츠레하)게/어 (생겼다, 보인다)

b. 인아가 (*오뚝하, ?거슴츠레하)게/어 (생겼다, 보인다)

부분시각 형용사는 명사_a 위치에 인물 명사만을 허용하며 명사_b 위치의 속성 명사가 생략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 그 삭제 양상이 결합하는 개별 형용사에 따라 다르다 (인아가 (*오뚝하다, 거슴츠레하다)). 또한 이 무리 형용사의 특징 중 하나는 명사_b 위치의 신체 부위 명사가 특정한 부위로 한정되어 주어진 형용사와의 결합을 예측할 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오뚝하다, 거슴츠레하다, 곱슬곱슬하다, 짙록하다, 합죽하다’ 같은 부분시각 형용사들은 각각 ‘코, 눈, 머리칼, 허리, 입’ 같은 특정 신체부위 명사와 결합한다.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신체부위 명사와의 결합을 허용하는 ‘길다, 넓다, 보들보들하다’ 같은 시·촉각 형용사들과 구별된다 (아래 3) 참조).

3) 시·촉각 형용사

아래 형용사는 앞에서 논의한 ‘부분 시각’ 형용사처럼 인물 명사의 부분적 신체 부위의 시각적인 감각을 기술한다. 그러나 전자와는 달리 동일 형용사가 인물 명사뿐만 아니라 동물 명사의 신체 부위 그리고 나아가 비인물 명사의 물체 부위 또한 자연스럽게 기술할 수 있다.

- (14) a. 돌이의 (얼굴이, 손이) (길쭉하다, 하얗다)
 b. (그 병의 주둥이가, 새의 부리가) (길쭉하다, 하얗다)

이 무리의 형용사 구문에서 명사_b 위치의 신체 및 물체 부위 명사가 삭제 되면 문장들 사이에 약간의 의미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15) a. 돌이가 (?길쭉하다, ?하얗다)⁸⁾ (≠ (13a))
 b. (그 병이, 새가) (길쭉하다, 하얗다) (≠ (13b))

그런데, ‘모양, 색깔’ 같은 시각적 감각을 기술하는 이러한 형용사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촉각을 기술하는 형용사들도 동일한 분포 속성을 보인다. 즉 인물 및 동물 명사의 신체부위 그리고 비인물 명사의 물체부위를 동시에 기술한다.

- (16) a. 돌이의 (얼굴이, 손이) (거슬거슬하다, 보드랍다)
 b. (그 병의 주둥이가, 새의 부리가) (거슬거슬하다, 보드랍다)

마찬가지로 (동물명사와 결합한) 신체부위 명사 및 물체부위 명사의 삭제로 인하여 해당 문장들 사이에 약간의 의미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17) ≠ (그 병이, 새가) (거슬거슬하다, 보드랍다)⁹⁾

이러한 분포적 속성 (즉 명사_a에 인물, 동물 및 비인물 명사를 그리고 명사_b에 신체 및 물체부위 명사)을 갖는 형용사류를 통틀어 시각 및 촉각을 기술하는 형용사류 (시·촉각 형용사)로 명명하기로 한다. 이 ‘시·촉각’ 형용사는 ‘명사_a-의 명사_b-가’ 형식의 복합명사구를 주어로 한 ‘보이다’ 구문을 규칙적으로 허용한다.

8) 이 문장들이 문법적이라면 ‘돌이의 몸매가 길쭉하다, 돌이의 피부가 하얗다’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9) 신체부위가 동물명사와 결합한 경우 및 물체부위가 비인물 명사와 결합한 이러한 경우와는 달리, 신체부위가 인물명사와 결합한 경우는 비문 (*돌이가 (거슬거슬하다, 보드랍다)) 또는 의심스러운 문장 (위 (14a) 참조)이 되는 일이 허다하다.

- (18) a. 돌이의 (얼굴이, 손이) (길쭉해, 하애) 보인다
- b. (그 병의 주둥이가, 새의 부리가) (길쭉해, 하애) 보인다
- (19) a. 돌이의 (얼굴이, 손이) (거슬거슬해, 보드라와) 보인다
- b. (그 병의 주둥이가, 새의 부리가) (거슬거슬해, 보드라와) 보인다

‘보이다’ 구문은 ‘부분시각’ 및 ‘전체시각’ 형용사 무리에도 허용되는데, 이 두 형용사에 적용되는 또 하나의 동사 구문 ‘생기다’ 구문은 ‘시·촉각’ 형용사의 경우 그 허용 양상이 불규칙하다.

- (20) a. 돌이의 (얼굴이, 손이) (길쭉하게, 하얗게) 생겼다
- b. ?(병의 주둥이가, 새의 부리가) (길쭉하게, 하얗게) 생겼다
- (21) a. *돌이의 (얼굴이, 손이) (거슬거슬하게, 보드랍게) 생겼다
- b. *(병의 주둥이가, 새의 부리가) (거슬거슬하게, 보드랍게) 생겼다

이상으로 ‘생기다, 보이다’ 구문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전체 시각’, ‘부분 시각’ 및 ‘시·촉각’이라는 세 가지 통사 무리를 추출하였다.¹⁰⁾

3. 비오감 형용사 무리

3.1. ‘굳다/행동하다,살다/생활하다’ 구문과의 말바꿈관계: 인성 형용사류

아래 형용사들은 인물명사의 ‘성격, 동작, 머리 (똑똑함)’등을 기술하며 대체로 ‘굳다, 행동하다’를 기능 동사로 하는 부사형 구문을 허용한다.

- (1) 민우의 (성격이 간교하다, 동작이 민첩하다, 머리가 똑똑하다)
- (2) a. 민우가 (간교하게, *민첩하게, 똑똑하게) 군다
- b. 민우가 (간교하게, 민첩하게, 똑똑하게) 행동한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이들을 하나의 무리로 통합한다면, 인물 명사의 내재적 성질을 기술한다는 의미에서 ‘인성’ 형용사로 지칭할 수 있다.

10) 그러나 이 세 가지 무리가 모두 규칙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생기다, 보이다’ 구문을 허용하는 점에서 이러한 기준들이 그 각각의 통사적 독립성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러한 기준을 보완하는 몇 가지 다른 통사 기제들이 제 4 절에서 제시될 것이다.

인물 명사의 내제적 속성을 기술하는 형용사로 ‘삶, 생활’을 기술하는 또 다른 일단의 형용사들도 있다. 이 형용사들은 ‘살다, 생활하다’를 기능동사로 하는 부사형 구문을 허용한다.¹¹⁾

- (3) a. 민우의 (삶이, 생활이) 부유하다
- b. 민우가 부유하게 (산다, 생활한다)

서로 다른 기능 동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두 무리의 형용사를, 주어를 구성하는 명사들의 분포적 동일성에 근거하여 하나의 통사 무리로 통합하기로 한다. 즉 모두 명사_a 위치에 인물 명사만을 허용하며 (동물 명사를 허용하는 소수의 형용사가 있다) 명사_b 위치의 속성명사가 자유롭게 생략 가능하다는 것이다.

‘굴다, 행동하다’ 구문으로의 변이를 허용하는 형용사들 중 일부는 시각 형용사의 주 속성인 ‘생기다, 보이다’ 구문으로의 변이를 허용하기도 한다.

- (4) 돌이가 (간교하, 민첩하, 뽄뽄하)게/어 (생겼다,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인물 명사의 내제적 속성이 화자에 의해 외부적으로 관찰되어 주관적으로 발화된 것으로, 이를 내제적 속성의 시각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 (4)의 문장들이 ‘돌이가 (간교한, *민첩한, 뽄뽄한) 것 같다’ 같이 심리적인 측면을 갖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어 중의성을 띤다.

3.2. ‘상태이다/상태에 있다’ 구문과의 말바꿈관계 : 비인성 형용사류

다음 형용사 구문들은 비인물 명사의 내제적 속성을 기술하며 ‘상태’를 서술명사로 하는 ‘이다’ 구문을 허용한다.

- (5) a. 이 산의 (경사가 가파르다, 형세가 험준하다)
- b. 이 산의 (경사가 가파른, 형세가 험준한) 상태이다

11) 여기서 ‘행동하다, 살다, 생활하다’ 같은 구문은 ‘행동을 하다, 삶을 살다, 생활을 하다’ 같은 서술 명사와 기능동사로 분리된 구문과 형태적 파생관계에 있다.

- (i) 민우가 간교하게 행동을 한다
- (ii) 민우가 부유하게 (삶을 산다 + 생활을 한다)

c. 이 산이 (가파른, 험준한) 상태이다

이러한 형식을 허용하는 형용사들을 ‘비인성 형용사류’로 지칭한다면, 이 구문들은 명사_a 위치에 비인물 명사만을 허용하며, 명사_b 위치의 속성명사들은 쉽게 생략된다. 이러한 통사관계를 허용하는 ‘비인성’ 형용사로 위 같은 ‘형세, 경관, 경사, 경치’ 등을 기술하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외관, 외양’ 등 일종의 ‘모양’을 기술하는 형용사 (구불통하다, 야트막하다, 초라하다, 허름하다, 부실하다, 으리으리하다), ‘무게, 부피’ 등을 기술하는 형용사 (가볍다, 묵직하다, 육중하다), 그리고 ‘농도 (혜뭍다, 짝짝하다), 품질 (견고하다, 정밀하다), 규모 (으리으리하다, 웅장하다), 값 (비싸다, 저렴하다), 몰살/세력 (강력하다, 강대하다, 거세다, 거세차다), 조직 (설핏하다, 성글다), 세력 (강대하다, 강력하다)’ 등 다양한 ‘상태’를 기술하는 형용사들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무리 형용사 구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다’ 구문을 허용하기도 한다.

(6) 그 건물은 (허름한, 부실한) 상태에 있다

이 ‘상태에 있다’ 구문이 다른 기능동사 구문보다는 상당히 인공적인 느낌이 들기는 하나 ‘비인성’ 형용사 구문에만 불규칙하게나마 관찰된다.

3.3. ‘상태이다/느낌이다’ 구문과의 말바꿈 관계 및 복합명사구의 ‘기후’ 명사에 의한 대처 : 기후 형용사류

다음과 같은 형용사들은 일시적인 자연 현상을 기술하는데, ‘상태, 느낌’을 서술명사로 하는 ‘이다’ 구문을 허용한다.

- (7) a. (하늘의 상태가 맑다, 바람의 느낌이 차다)
b. (하늘이 맑은 상태이다, 바람이 찬 느낌이다)

이 형용사들은 명사_a 위치에 반드시 비인물 명사, 그 중에서도 ‘하늘, 바람, 구름, 공기’ 같은 자연상태를 나타내는 특정 명사들이 오며 명사_b 위치의 속성명사들이 모두 쉽게 생략된다 (하늘이 맑다, 바람이 차다).

그러나 이 무리 형용사들의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특성은 ‘명사_a-의 명사_b-가’ 형식의 복합 명사구 주어를 ‘날씨, 기후’ 같은 단순 기후 명사로 대체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8) (날씨가, 기후가) (맑다, 차다)

이러한 점에서 이 형용사들을 ‘기후’ 형용사로 지칭하기로 한다.

3.4. ‘느껴지다’ 구문과의 말바꿈 관계 : 심상 형용사류

다음과 같은 일련의 형용사들은 인간의 마음·기분, 한 공간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분위기를 기술하며 ‘느껴지다’를 기능동사로 한 관형 구문을 허용한다.

(9) a. (돌이의 마음이 유쾌하다, 이 방의 분위기가 아늑하다)
 b. (돌이가 유쾌한 마음이, 이 방이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진다¹²⁾

이처럼 이 형용사들은 개인이나 한 공간을 차지하는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을 심상 형용사로 지칭하기로 한다.¹³⁾ 이 구문은 명사_a 위치에 인물 및 비인물 (공간명사) 명사를 공히 허용하며, 결합한 형용사에 따라 명사_b의 속성명사가 삭제되기도 안되기도 한다. 즉 ‘돌이가 유쾌하다, 이 방이 아늑하다’처럼 삭제가 가능한 구문이 있는 반면, 다음에서처럼 속성명사의 삭제가 비문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10) a. (돌이의 마음이 허전하다, 이 방의 분위기가 살벌하다)
 b. (*돌이가 허전하다, *?이 방이 살벌하다)

12) 여기서 공간명사의 분위기를 기술하는 경우 ‘느껴지다’의 주체는 방을 차지하는 공동 인물명사이다. 따라서 인물 명사의 마음 상태를 기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어를 인물명사로 대체할 경우 ‘느끼다’를 동사로 하는 능동형 문장이 가능하다.

(i) 돌이가 유쾌한 마음을 느낀다.

(ii) 사람들이 (이 방에서) 아늑한 분위기를 느낀다.

13) 심상 형용사는 일종의 심리 현상 및 심리적 증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심리 형용사 및 증상 형용사 등과 의미적으로 상당히 유사성을 띤다. 위 (9a)와 같은 형용사 구문의 ‘심리’ 및 ‘증상’ 형용사 구문과의 형식적 차이점에 대해서는 정고스란(2003)에서 짧게나마 언급된 바 있다.

4. 세 가지 시각 형용사 무리를 구별하기 위한 통사기제

이 절에서는 ‘생기다, 보이다’ 구문을 허용하는 세 가지 무리, 즉 ‘전체 시각’, ‘부분 시각’ 및 ‘시·촉각’ 형용사의 통사적 독립성을 보다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기제들을 논의한다.

표 2. 세 가지 시각 형용사 무리를 구별하기 위한 통사기제

	전체시각	부분시각	시·촉각
명사 _c 위치에 새로운 속성명사의 삽입	(+)	+	+
신체부위 명사의 구체적인 ‘장소’ 해석			+
주어 복합명사구의 신체접촉동사와의 결합			+
신체부위 명사의 ‘용모’와의 대치	+		

4.1. 명사_c 위치에 새로운 속성명사의 삽입 : 부분 시각 및 시·촉각 형용사류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속성명사는 명사_b 위치에 오는데, 신체 및 물체 부위 명사를 보유하는 ‘부분 시각’ 및 ‘시·촉각’ 형용사의 경우 이러한 명사 오른쪽에 (이를 명사_c 위치로 명명하기로 한다) 형용사와 어휘적으로 보다 잉여적인 또 하나의 속성명사를 삽입할 수 있다.¹⁴⁾

- (1) a. 인아의 (얼굴이, 얼굴(의) 빛이) 수척하다
- b. 인아의 (손이, 손의 촉감이) 보들보들하다

이러한 명사_c 위치에서의 새로운 속성명사의 삽입은 또 하나의 시각을 기술하는 형용사 무리, 즉 ‘전체 시각’ 형용사 무리에서도 불규칙하게나마 관찰된다.

- (2) a. 인아의 (얼굴이, 얼굴(의) 모습이) 우아하다
- b. 인아의 (몸이, *?몸(의) 모습이) 숙성하다

14) ‘부분 시각’ 형용사 구문 (1a)의 경우 명사_b와 명사_c가 융합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속성명사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인아의 (얼굴 빛이, 안색이) 수척하다).

4.2. 신체부위 명사의 ‘장소’ 해석 : 시·촉각 형용사류

부분적으로 의미적 동질성을 가지는 세 가지 시각 형용사는 명사_b 위치의 신체부위 명사의 해석상의 차이에 의해 통사적 상이점이 드러난다. 즉 신체부위 명사가 ‘시·촉각’ 형용사에서만 구체적인 ‘장소’ 해석을 가지며 ‘전체 시각’ 및 ‘부분 시각’ 형용사 무리에서는 다른 모든 속성명사 (용모, 맛, 목소리, 성격, 기분 등)와 마찬가지로 추상적 해석을 갖는다.¹⁵⁾ 따라서 ‘시·촉각’ 형용사 무리의 경우 신체부위 명사를 ‘무엇’ 및 ‘어디’ 의문대명사로 대체할 수 있다.

- (3) (문) 인아가 (무엇이, 어디가) (하얗니, 거칠하니, 기니)?
 (답) (손이, 코가)

반면, 다음과 같은 ‘전체 시각’ 및 ‘부분 시각’ 형용사 구문에서는 동일한 신체부위 명사가 이와 같은 구체적인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 (4) (문) *인아가 (무엇이, 어디가) 색정정이니? - (답) (몸이, 얼굴이)
 (5) (문) *인아가 (무엇이, 어디가) 치렁치렁하니? - (답) 머리가

이처럼 동일한 신체부위 명사가 결합하는 형용사에 따라 구체적인 해석을 가질 수도 있으며 (시·촉각 형용사와 결합할 때), 다른 모든 속성명사처럼 추상적인 해석을 가질 수도 있음 (전체 및 부분 시각 형용사와 결합할 때)을 확인할 수 있다.

4.3. 주어 복합 명사구의 ‘신체 접촉’ 동사 무리와의 결합 : 시·촉각 형용사류

이 절에서는 주어 자리에 위치하는 ‘명사_a-의 명사_b’ 형식의 복합 명사구를 타동 구문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시킬 때 동사로서 특정 무리의 타동사가 요구됨을 관찰함으로써 앞 절에 이어 ‘시·촉각’ 형용사의 통사적 독립

15) 이 때문에 대부분의 속성 명사는 ‘무엇’ 의문대명사로의 대치가 불가능하다.
 (i) 인아의 (용모가 우아하다, *무엇이 우아하니?)
 (ii) 이 된장국의 (맛이 짜다, *무엇이 짜니?)
 (iii) 돌이의 (목소리가 찌렁찌렁하다, *무엇이 찌렁찌렁하니?)

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다음 문장의 형용사는 ‘시·촉각’ 형용사에 속한다.

(6) (돌이의 팔이, 나무의 가지가) 앙상하다

이 때 복합 명사구 주어는 신체 접촉을 나타내는 타동사 구문에서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다.

- (7) a. 인아가 (돌이의 팔을, 나무의 가지들) (뉘아챘다, 쓰다듬다)
 b. 인아가 (돌이를 팔을, 나무를 가지들) (뉘아챘다, 쓰다듬다)

물론 신체 및 물체 부위를 포함하는 모든 복합 명사구가 신체 접촉을 표시하는 동사 구문만의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복합명사구만이 타동구문의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도 아니다. 즉 아래 (8a)에서처럼 동일 복합 명사구가 다른 타동구문에도 올 수 있으며, (8b)에서처럼 (신체 및 물체부위와 무관한) 지금까지 관찰된 거의 모든 복합명사구가 다양한 타동구문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다.

- (8) a. 인아는 (돌이의 팔을, 나무의 가지들) 바라본다
 b. 인아는 (그 음식의 맛을, 그 산의 경치를) (좋아한다, 음미한다)

그러나 ‘맛, 경치’ 같은 추상명사는 신체 접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뉘아챘다, 쓰다듬다’ 같은 타동사 무리와는 결합할 수 없다. 이처럼 문장 (7)의 동사 ‘뉘아챘다, 쓰다듬다’가 분포하는 목적어 명사구는 ‘시·촉각’ 형용사 구문에서 관찰되는 종류의 주어 명사구 (즉 신체 및 물체 부위를 포함하는 명사구)이다. 이러한 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위치함으로써 주격 중출문을 유도하는 것처럼, 동일 명사구가 목적어 자리에 위치함으로써 (7b) 같은 대격 중출문을 유도한다. Chung, Gohsran (2002, 2003)에서 ‘뉘아챘다, 쓰다듬다’ 같은 동사를 ‘신체 접촉’ 동사류라 하여 그 통사적 특성이 논의된 바 있다. 특히 Chung, Gohsran (2003)에서 한국어 전체 동사 목록으로부터 신체접촉 동사를 추출하는 통사적 기준으로 복합명사구 구문과 대격 중출문의 등가 관계를 유발하는 조건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검증 기준¹⁶⁾, ‘-을/를’의 ‘-로’와의 교환 가능성¹⁷⁾, 그리고 신체 접촉이라는 해석과 관련된 검증 기

16) 양도불가성 조건, 성분 분리성 조건, 신체 및 물체 부위 명사와 동사 사이의 어휘적 적정성 조건, 복합명사구를 구성하는 두 성분 사이의 환유 관계 등.

준¹⁸⁾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검증 기준을 통해 약 300여 개의 ‘신체 접촉 동사’무리가 추출되었다.

그런데, 주어 복합 명사구의 신체접촉 동사 구문에서의 목적어 자리로의 이동은 동일 유형의 복합 명사구를 가질 수 있는 ‘전체 시각’ 및 ‘부분 시각’ 형용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9) a. 돌이의 (몸이 허약하다, 얼굴이 수척하다)
- b. 인아가 돌이의 (몸을, 얼굴을) (쓰다듬었다, 물었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 있듯, ‘전체 시각’ 및 ‘부분 시각’ 형용사 구문에서의 신체부위 명사는 ‘무엇, 어디’ 같은 구체적인 장소 해석을 갖지 못한다. ‘시·촉각’ 형용사 구문에서의 신체 및 물체 부위 명사만이 이러한 구체적인 장소 해석을 갖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장소 해석은 신체접촉 동사 구문에서의 신체 및 물체부위 명사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통사적 평형 관계가 시·촉각 형용사 구문과 신체접촉동사 구문 사이에서 유지된다.

- (10) (문) (인아의, 책상의) (무엇이, 어디가) 기니?- (답) 다리
- (11) (문) 돌이가 인아의 (무엇을, 어디를) 때렸니? - (답) 다리

17) 신체접촉 동사의 대격 중술문에서 두 번째 ‘명사-을/를’ 논항은 접촉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서의 해석을 갖는다. 이 ‘명사-을/를’ 논항이 ‘명사-로’와 교환될 수도 있는데, ‘-로’와 결합한 명사가 신체부위 명사일 때 (예: ‘손으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아니라 그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물체 부위 명사의 경우 (예: ‘주둥이로’) ‘명사-을/를’과 마찬가지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서의 해석을 갖는다. 이러한 해석상의 차이는 ‘손, 주둥이’ 자체가 지니는 기능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손’ 대신에 ‘팔, 다리’ 같은 다른 신체부위 명사가 올 때 ‘명사-로’ 구문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접촉 지점으로서의 해석을 갖는다.

- (i) 돌이가 (인아를 손을, 병을 주둥이를) 쓰다듬는다
- (ii) 돌이가 (인아를 손으로, 병을 주둥이로) 쓰다듬는다

18) 신체접촉이라는 행동은 그것이 실행될 동안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오분 동안’ 같은 시간 부사어의 삽입 허용한다 (인아가 돌이의 손을 오분 동안 (쓰다듬었다, 물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면 이는 일단 행동 완료된 것이다. 따라서 두 개의 행동이 서로 대조되는 (*인아가 돌이의 손을 물었지만, 물려지지 않는다) 같은 복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검증방법은 신체부위 명사를 갖는다는 점에서 피상적으로 동일한 ‘뚫다’ 같은 동사를 신체접촉 동사 무리로부터 분리할 수 있게 해준다 (예: *미용사가 인아의 귀를 오분동안 뚫었다 ; 미용사가 인아의 귀를 뚫었지만, 뚫려지지 않았다).

4.4. 속성명사의 ‘용모’에 의한 대치 : 전체 시각 형용사 무리

‘전체 시각’ 형용사는 신체 (및 물체) 부위 명사만을 갖는 다른 두 유사 무리와는 달리, 명사_b 위치에 ‘얼굴, 몸’ 같은 신체부위 명사뿐만 아니라 비 신체부위 명사를 갖는 경우도 있다.

(12) 돌이의 (나이가 젊다, 옷매무새가 단정하다, 키가 훗칠하다)

이때 신체부위 명사들뿐만 아니라 후자의 경우에도 ‘용모/외모’ 같은 전체 적으로 신체를 기술하는 추상적인 속성명사와 쉽게 대체된다. 이러한 분포 속성은 전체 시각 형용사 무리를 다른 두 유사 무리로부터 구별하는데 얼마간 도움이 된다.

(13) 돌이의 용모가 (젊다, 단정하다, 훗칠하다)

이상으로 우리는 의미적으로 공통적인 세 가지 형용사 무리, 즉 ‘전체 시각’, ‘부분 시각’, 그리고 ‘시·촉각’ 형용사의 통사적 차이점을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았다.

5. 결론

지금까지 성상 형용사 구문의 아홉 가지 하위 유형들을 다양한 통사 구조와의 변이관계를 통해 그 형식적 분류 근거를 논의해 보았다. 이들을 주어 복합명사구의 분포 구조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 표 3에서와 같다.¹⁹⁾

19) 괄호 안의 숫자는 3000 여개에 달하는 전체 성상형용사 중 각각의 표제어의 수를 의미한다.

표 3. 분포속성에 따른 성상 형용사 구문의 하위 유형

	명사 _b 의 삭제						
	허용			허용 또는 불허		불허	문장의미변화
	오감	비오감		오감	비오감	오감	
명사 _a = 비인물	미·후각 (249)	비인성 (490)	기후 (102)		심상 (154)	청각 (80)	시·촉각 (761)
명사 _a = 인물	전체시각 (228)	인성 (806)		부분시각 (168)			

이러한 분류를 허용하는 통사적 기제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형용사들은 여전히 문제를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세 가지 시각 형용사와 관련된 한 표제어들로서 지금까지 논의한 기준으로부터도 그 구별이 쉽지 않은 다음과 같은 형용사들을 들 수 있다.

- (1) a. 인아의 용모가 (가날프다, 빈약하다)
- b. 인아의 (다리가 가날프다, 가슴이 빈약하다)
- (2) a. 인아의 용모가 (아름답다, 예쁘다)
- b. (인아의 눈이, 그 나무의 가지가) (아름답다, 예쁘다)

(1)의 두 구문은 동일한 형용사들이 전체적 신체부위 명사와 부분적 신체부위 명사를 동시에 허용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각각 전체 및 부분 시각 형용사로 분리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의 직관으로 볼 때 각 경우에 따라 표제어를 분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2)의 두 구문 또한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동일한 형용사가 (2a)에 의해 전체 시각 형용사로 그리고 (2b)에 의해 시·촉각 형용사로 각각 분리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각 무리의 독립성을 증명해주는 통사적 기제들이 제 각각의 경우 별도로 적용되어 그 통사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²⁰⁾

다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자료는 해당 형용사가 하나 또는 극히 제한된 속성명사만을 허용하는 경우와 거의 모든 속성명사를 자유롭게 취하는 경

20) ‘시각’이라는 의미적 유사성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문제와는 달리, 시각 형용사 무리 이외에 중의성을 띠는 몇가지 형용사들은 각각을 각 해당 무리의 표제어로 무리없이 기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격, 목소리, 촉감’을 기제하는 ‘거칠다’ 그리고 ‘성격, 목소리’를 기제하는 ‘나긋나긋하다’ 등을 들 수 있다. 즉 ‘거칠다’의 경우 ‘인성, 청각, 시·촉각’ 형용사에 그리고 ‘나긋나긋하다’의 경우 ‘인성, 청각’ 형용사에 각각 표제어로 등재된다.

우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돌이가 품행이 방정하다’에서의 ‘방정하다’, 그리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이 음식의 (맛이, 냄새가) 좋다, 민우의 (성격이, 목소리가) 좋다, 날씨가 좋다, 금강산의 경치가 좋다, 인아의 체격이 좋다, 인아의 피부가 좋다’ 등에서의 ‘좋다’를 들 수 있다. 한국어 어휘부에서 ‘좋다’ 같은 어휘는 성상 형용사뿐만 아니라 심리 형용사 같은 다른 어휘류에도 소속될 수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전형적인 성상 형용사류도 문맥에 따라서는 심리 형용사의 쓰임을 보일 때가 있다 (‘민우의 얼굴이 귀엽다, 저 산의 높이가 높다’와 ‘나는 민우가 귀엽다, 나는 저 산이 높다’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이러한 소수의 형용사²¹⁾ 들은 별도로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 성상 형용사 하위 무리의 표제어 예

미·후각 : 간간하다, 개운하다, 건건하다, 고들고들하다, 고리다, 고리타분하다, 곰팍스럽다, 구수하다, 노리다, 누리적지근하다, 느끼하다, 달곰하다, 달다, 담하다, 담백하다, 들치근하다, 떨뜨름하다, 맵다, 바슬바슬하다, 부둑부둑하다, 비리다, 삼삼하다.....

청각 : 구성지다, 나뉘나뉘하다, 나죽하다, 날카롭다, 낭랑하다, 녹다, 둔탁하다, 또랑또랑하다, 명명하다, 생동생동하다, 앙칼스럽다, 왈왈하다, 우렁차다, 은은하다, 쟁쟁하다, 쩌렁쩌렁하다, 카랑카랑하다.....

전체시각 : 가날프다, 강마르다, 고아하다, 관능적이다, 경충하다, 꼬장하다, 남루하다, 늘씬하다, 늙수그레하다, 다부지다, 단정하다, 땅딸막하다, 매혹적이다, 몰골스럽다, 복스롭다, 비만하다, 생정적이다, 수수하다, 야하다, 연로하다, 연소하다.....

부분시각 : 가마말썹하다, 곱슬곱슬하다, 꽃꽃하다, 테꾼하다, 되록되록하다, 떼꾼하다, 푹푹말방하다, 말뚱말뚱하다, 바드름하다, 발록하다, 부리부리하다, 서글서글하다, 수척하다, 창백하다, 초롱초롱하다, 포동포동하다, 토실토실하다, 쨍하다, 푸수수하다..

시·촉각 : 가늘다, 가망다, 가칠가칠하다, 거머누르께하다, 거무집집하다, 거칠다, 검누렇다, 굵었다, 굵다, 길다, 까맣다, 깔끄럽다, 낫다, 넓다, 노랑다, 네모나다, 높다, 누렇다, 둥그스름하다, 둥글다, 두껍다, 두리몽술하다, 두툼하다, 둥긋하다, 만질만질하다, 매끄럽다, 맨둥맨둥하다, 작다, 질다, 째다, 좁다, 쫙긋하다, 크다, 과랴다.....

인성 : 가난하다, 간사스럽다, 거만하다, 건방지다, 건실하다, 게으르다, 경솔하다, 고루하다, 곱살맞다, 과묵하다, 괴팍하다, 군색하다, 군세다, 근면하다, 깔끔하다, 깨끗하다, 께바르다, 날렵하다, 냉정하다, 느물느물하다, 능글맞다, 다정스럽다, 단호하다, 똑똑하다, 모질다, 미련스럽다, 발랄하다, 부지런하다, 살뜰하다, 순박하다, 시건방지다.....

비인성 : 가절하다, 강대하다, 결죽하다, 견고하다, 곱다, 공활하다, 광막하다, 팽하다,

21) 표 3에 나타나는 표제어 수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자료들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의 대안을 근거로 한 숫자이다.

구지레하다, 기름지다, 깊숙하다, 꼬끔하다, 나즈막하다, 너르다, 노쇠하다, 농탁하다, 높푸르다, 녹진하다, 따끈하다, 단단하다, 말랑하다, 맑다, 밋밋하다, 무겁다, 몽탕하다, 목직하다, 물다, 미끈덕하다, 비싸다, 아담하다, 비좁다, 등.....

기후 : 건조하다, 고습하다, 구무레하다, 궂다, 껌껌하다, 냉습하다, 눅눅하다, 무덥다, 산들산들하다, 사랑살랑하다, 소소하다, 습윤하다, 어둑하다, 으스름하다, 온난하다, 엄랭하다, 차다, 청량하다, 청명하다, 춥다, 칙칙하다, 쾌청하다, 푸근하다, 한랭하다.....

심상 : 가분하다, 그윽하다, 맨송맨송하다, 느슨하다, 몽몽하다, 산뜻하다, 산란하다, 살벌하다, 생생하다, 시들먹하다, 시무룩하다, 실쭉하다, 심란하다, 심통하다, 쓸쓸하다, 아늑하다, 우울하다, 울적하다, 유쾌하다, 음울하다, 적막하다, 충충하다, 험악하다.....

참고 문헌

- 김남탁. (1996). 성상형용사 구문의 구조 변천. *어문론총 30*, 경북어문학회.
- 김미형. (1989). 형용사의 의미 유형과 구문의 차이. *재효 이용주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서울: 한샘.
- 김창섭. (1985). 시각 형용사의 어휘론. *관악 어문 연구 10*,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유현경. (1996). *국어 형용사 연구*. 연세 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유현경. (2000). 국어 형용사의 유형에 대한 연구. *국어학 36*, 221-258. 국어학회.
- 정고스란. (2003). 한국어 성상 형용사류의 추출과 그 구문 연구: 어휘-문법론에 근거하여. *언어학 11(2)*, 17-37. 대한언어학회.
- 최현배. (1937/1971). *우리 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 Chung, Gohsran. (2002). A type of Inalienable Possession Construction in Korean. In *Proceeding Advance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 Ranchhod & N. Mamede (Eds). Springer (LNAI 2389), 71-74.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PorTAL, Faro, Portugal.
- Chung, Gohsran. (2003). Une classe de verbes transitifs en coréen: Verbes de contact-corporel. *Language Research 39(1)*, 39-68.
- Gross, Maurice. (1975). *Méthode en syntaxe*. Paris: Hermann.
- Nam, Jee-Sun. (1994). *Classification syntaxique des constructions adjectivales en coréen*.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de Paris 7.

정고스란 (Chung Gohsran)
Institut Gaspard Monge
5, Boulevard Descartes
77454 Champs-sur-Marne Cedex 2 France
전화 : + (33) 6 21 38 97 07
이메일 : gchung@univ-mlv.fr

Received: 30 September, 2003

Revised: 5 November, 2003

Accepted: 20 November, 2003